



한 석 현
〈한국축산학회 회장〉

육류 유통형태를 혁신하는 선구자 역할 수행해야

「월간양돈」지가 이 땅에 고고의 성을 올린지 벌써 9주년을 맞게 되면서 1천3백 축산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경축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월간양돈」지가 양축가는 물론 관련업계, 학계에 이르기까지 축산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학문과 기술의 정보매체로서 양돈산업발전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신 지대한 공헌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육류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공급하게 되어 식량증산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장과 정에서 질보다는 양적 신장에 너무 치우쳐 왔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업종별로 밀도있는 장기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일각에서 사료식민지형 축산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합니다만, 순수한 우리의 식량생산은 50% 미만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자주·자립 양돈업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료생산을 비롯한 종축의 선택과 개량, 육종번식, 사양체계의 확립, 사료기술의 고도화, 물량조절 생산과 국제출하 규격의 정착과 동시에 한국실정에 맞는 등급제에 따른 차등가격제도의 실시정착, 가공기술의 선진화, 유통체계의 합리화 등 축협이나 민간기업, 협회를 통한 계열화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선진양돈업으로 하루 속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제도의 실시가 시급합니다. 수 많은 양축가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단합된 힘으로 타개해야 합니다.

양돈업은 생산과 가공처리 및 유통소비단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축산물의 소비문제는 생산, 가공, 유통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관·민, 양축가, 학계, 업계가 일체가 되어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협동을 통하여 종합적인 개발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월간양돈」지의 책임감과 사명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양돈산업과 육류 유통형태를 혁신하는 선구자 역할에서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짐에 대한 격려와 무궁한 발전을 위한 기원을 드리며, 「월간양돈」 편집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류 제 창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

오늘도 내일도

양돈인의 벼이 되어주길

「월간양돈」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월간양돈」이 창간되던 1979년 7월은 우리나라 양돈사상 돼지값이 가장 싸서 돼지새끼 한 마리에 단돈 담배 한 갑의 가격인 오백원으로 내려갔다가 그래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충남 홍성에서는 산에다 버리는 사태까지 났고, 그후 산돼지(?)가 많아졌는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어려운 불황에 탄생한 「월간양돈」이기에 불황을 이기고, 슬기롭게 생존하는 묘방을 찾기에 9년의 세월이 지났는지도 모른다.

대한양돈협회가 양돈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술과 경영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과감하게 건의하고 주장해 왔는데, 바로 이 「월간양돈」을 통해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적절히 구사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 덕택으로 양돈업계는 극심한 파동이 없었던 '79년 이후 가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나 닭에 비하여 비교적 순탄한 길로 성장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78년도에 돈육의 대일수출을 국내수급의 안정이란 명목으로 중단한 축산정책의 잘못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출의 기회가 적었으나, 다행히도 작년부터 재개된 대일돈육 수출은 양돈농가는 물론이고 축산업계의 모든 가족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으로부터 거세게 밀려오는 쇠고기 수입개방압력을 비롯한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의 수입자유화 요구는 우리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건너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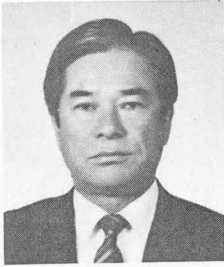
이러한 「축산의 비상사태(畜産의 非常事態)」에 당면한 우리 축산인은 보다 양질의 돈육을 더욱 저렴한 값으로 생산하는 경영기술을 터득해 국제경쟁력을 키우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일수출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료곡물, 축산기자재 등의 도입시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도 완전 철폐시켜 축산물의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켜야 될 것이다.

양돈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월간양돈」은 그 시대적 사명과 임무의 수행을 위해 국제수준의 기술향상,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능력향상, 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농민들에게 새롭고 유익한 정보는 물론, 모든 축산인이 단결하고,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수입으로 입은 피해를 수출과 신념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의젓한 한국양축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월간양돈은 오늘도 내일도 양돈인의 참다운 벼이 되어주길 바란다.*



박 찬 금
(한국사료협회 회장)

양돈인을 위한 진정한 전문지 기대

「월간양돈」지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가격 폭락과 폭등에서 탈피, 양돈산업을 안정된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양돈협회 임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양돈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의 우리나라 양돈업은 농가 부업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어장치의 부재로 출하 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은 사실상 힘겨운 실정이었으며, 폭락과 폭등이 주기적으로 양돈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양돈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힘입어 최근의 국내 양돈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육류 소비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눈부신 성장이 아닐 수 없으며, 양돈인들의 남다른 정성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돈산업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은, 그동안 주기적 불황의 주원인인 생산과 출하의 조절이라 하겠습니다. 수요를 생각치 않은 무계획적인 생산은 홍수출하를 가져와 돈육 가격의 하락을 초래해 결국은 생산자들의 피해가 심화되었던 전래로 보아 생산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매·비축의 소극적 출하조절기능에서 탈피, 민간주도의 적극적인 출하 조절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쇠고기수입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쇠고기 수입의 여파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 육류의 수입 개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종돈의 확보 및 개량사업의 적극적 전개와 기술 개발, 사양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생산원가의 절감과 아울러, 합리적 유통을 위한 돈육 제품의 등급화, 포장화, 가공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축산물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식생활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농가소득면에서나 식량 문제의 차원에서 경종농업보다 오히려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한지 오래된 일입니다. 특히, 양돈산업의 육류생산과 수요의 사회적 기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지속·안정산업으로서의 정착을 위해 사양관리, 경영기술, 양돈산업의 방향제시 등을 통해 양돈인을 위한 진정한 전문지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월간양돈」지의 창간 9주년을 맞아 다시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양돈인 여러분과 양돈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



송 찬 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세계의 양돈정보를 폭 넓게 전달하길!

어떤 산업이건 자기 분야에 건전한 언론매체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월간양돈」지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림과 아울러, 107권의 책을 계속 엮어오신 분들의 노고에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옛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요즘에 와서는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반접을 할 만큼 속도화 시대로 변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돈도 농산부산물이나 잔반에 의한 부업적 소규모 양돈에서 이제는 사료공업의 발달과 번식 및 경영관리 기술의 향상으로 해외에 돈육과 종돈까지도 수출할 만큼 성장하게 된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귀지(貴誌)와 귀회(貴會)가 꾸준히 애써온 결과로 이룩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여건은 정지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장으로 급속히 변해감을 볼 때, 지난날의 성취감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좁아만 가는 지구촌에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장을 여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출입의 자유화 물결이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인내(忍耐)와 끈기로 지탱해 온 농업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전·성장하며, 그 다음 단계로는 발전된 공업과 첨단과학의 힘으로 농업이 크게 발전할 계기가 온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정보시대(情報時代)라고 하듯이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돈정보 없이는 앞으로의 시대적 경쟁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월간양돈」지는 정확한 개량의 정보, 폭 넓은 양돈경영 기술의 입수·전달 등이 더욱 요청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월간양돈」지의 업적을 바탕으로 내일의 한국양돈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월간양돈」지의 창간 9주년을 맞는 축하의 말로 대신코자 합니다. *